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07. 24. 수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9. 07. 24.	총 2매 (별첨 3건)

6391원 금식판부터 1745원 흠식판까지
차별 키우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실태 폭로
“OO야, 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미안해”

- ▲[최초]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국회·지방자치단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결과 발표
서울시직장어린이집 6391원, 지자체 지원금 없는 어린이집 1745원 - 무려 3.7배 차이
- ▲복지부는 <2020 보육사업안내>에 급간식재료비 하한선을 인상하여 급식차별 해소해야
- ▲하원하자마자 배고프다는 아이들, 정부는 배부르고 건강한 급식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라

※ <전국 322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조사 결과> 및 <전국 243개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순위> 전체파일은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5142>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지난 6월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관련하여 두 번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00여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고, 민기 힘든 답변을 받았다.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1일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자체 지원금 없는 지역 어린이집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광주 서구 5000원, 서울 종로구 4940원, 서울 중구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 등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일반 어린이집과 격차가 매우 컸다.

지난 5월 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외식 대신 급식을 선물하자>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5개 지자체는 지원금이 전혀 없었고 1위는 충북 괴산군으로 1인당 매일 1190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 보육사업안내>의 부록에 따르면 1일 급간식 재료비의 하한선이 1745원이라고 정해놓았고, 이 기준은 적어도 11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아이들 급간식비는 매년 하락해 온 것이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고액은 충북 괴산군의 2935원(1745원+1190원)인데, 이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 이효진 활동가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며, 일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눈에 띄게 높은 단가에 가장 먼저 놀랐다. 솔직히 나의 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기에 화도 났다. 하지만 리스트를 가만 보고 있자니 화보다는 황당함에 가깝다. 대체 왜 다른 걸까? 무엇이 다른 걸까? **달라서는 안 될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진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이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든 아니든 아이들은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제대로 이루었을 때 비로소

보편적 보육체계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소회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 및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순위는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커뮤니티(<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